

월간 주요 이슈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2022. 9. 1.)

국표원, 해외 인기 구매대행 255개 제품 안전성조사 결과 발표

- 해외 구매대행 제품 26개, 국내 안전기준 부적합 -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코로나19 이후 온라인몰에서의 해외직구·구매대행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완구, 가정용섬유제품, 전기액체가열기기 등 인기 구매대행 255개 제품에 대해 국내 안전기준 충족 여부를 조사하였다.
- 해외 구매대행 제품은 소비자 선택권 확대 측면에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대부분 국내기준 적합 여부 검증 없이 국내 유입되는 제품인만큼, 정부는 위해 제품이 유입되지 않도록 미국, 유럽, OECD 등의 리콜 제품정보를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안전성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 조사대상 255개 중 국내 안전기준 26개 제품의 부적합 사유는 다음과 같다.(어린이제품 및 생활용품 중심 요약)

☒ 어린이제품 : 완구, 유아 신발 등

13개

(완구 : 8개 제품)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를 초과한 모형완구 1개, 납 및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를 초과한 승용완구 1개, 유아가 사용하기에 부적합한 작은 부품이 포함된 퍼즐완구 1개 등

(유아 신발 등: 5개 제품)

폼알데하이드 기준치를 초과한 유아용 운동화 1개, 납 및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를 초과한 유아용 의자 1개, 카드뮴 기준치를 초과한 유아용 침대 1개 등

☒ 생활용품 : 스케이트보드 등 9개 제품

9개

(스케이트보드, 물놀이기구 등: 9개 제품)

내구성 기준에 미달한 스케이트보드 2개 및 일반용 자전거 1개, 보조공기실이 없는 성인용 물놀이 기구(튜브) 1개 등

- 국가기술표준원은 앞으로 현재 캠핑, 운동용품 등 가을철 수요가 많은 수입 제품에 대해 관세청과 협업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등 제품 안전관리에 다각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